

2009. 4. 20 제213호

세계도시동향

목 차

문화·디자인

1. '베를린 장벽'이 20년 만에 예술작품으로 다시 붕괴 (베를린)
2. 세계 음식문화의 거리 (상하이)

산업·경제

3.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오직 런던' 계획 (런던)
4. 재무국장과의 대화를 위한 웹사이트 (베를린)
5. 경기침체 위기 극복 방안 도움이 웹사이트에 가득 (베를린)
6. 도시 과제 해결 위해 산학공 협력 사업 실시 (도쿄)

건강·복지

7. 아동 학대로 판단되면 병원은 이렇게 대응하세요 (도쿄)
8.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전문센터 건립 (런던)
9. 이민자 가정 학생의 어학실력 향상 캠프 (베를린)
10. 연말까지 식품안전구역 100개 이상 확대 (상하이)
11. 비행 청소년 직업훈련 우선 지원 (런던)

목 차

방재·안전

12. 거리 안전 책임질 ‘자발적 특별경찰’ (런던)

도시환경

13. 지하철역 근처에서 촬영한 조류 사진 경연대회 (런던)
14. 빌딩 악취 제거 매뉴얼 (도쿄)
15. ‘에너지 절약 진단원’이 에너지 절약 노하우 가정 방문으로 홍보 (도쿄)
16. 도시 녹지화 정책 (상하이)

도시교통

17. 자전거타기 활성화 위해 자전거 기금 사업 시행 (런던)
18. 1일 교통권으로 통근·통학 해결하세요 (필라델피아)
19. 지하철역에서 자전거 무료 임대 (브라질 상파울루市)
20. 자전거 교통 개선 기여자에게 시상 (베를린)

도시계획·주택

21. 빈 건물을 가족형 주택으로 전환 (런던)
22. 에너지 절약 모델 주택으로 에너지 절약 의식 확대 (베를린)

1. ‘베를린 장벽’이 20년 만에 예술작품으로 다시 붕괴 (베를린)

○ 베를린시는 2009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뉴욕시에서 ‘Be Berlin’ 행사를 열고, 영화·패션·디자인 등 베를린시의 창조산업을 집중 소개함.

-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 ‘베를린을 위한 거대 벽돌’ 제작은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하는 벽돌을 만드는 것임.

· 예술가와 시민이 참가해 2.5m의 거대한 인조 벽돌에 다양한 문구와 그림을 넣음.

· 벽돌은 베를린시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작품으로 전시되며, 200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행사’에 장벽 붕괴를 상징하며 쓰러뜨릴 계획임.

(www.berlin.de/rubrik/hauptstadt/politik-aktuell/090331.html)

2. 세계 음식문화의 거리 (상하이)

○ 상하이시 징안취 우장루 거리(吴江路休闲街)가 세계 여러 나라와 중국의 지방 음식이 모이는 음식문화의 거리로 거듭날 예정임.

- 우장루 거리 관리위원회는 우장루 거리를 세계 각국의 민속음식을 전시하는 문화 명소로 만들 계획임.

· 음식점 수는 기존의 45%에서 7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상하이시의 대표적인 음식문화의 거리이자 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태국의 맛’ 행사, ‘일본 음식 페스티벌’ 등이 열렸으며, 텐진·푸젠·랴오닝·내몽고·광둥 등 중국의 지방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도 열렸음.

(house.online.sh.cn/gb/content/2009-03/20/content_2894233.htm)

3.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오직 런던’ 계획 (런던)

○ 런던시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6000만 파운드(약 1200억 원) 규모의 관광사업 계획을 담은 ‘오직 런던’(Only London) 계획을 발표함.

- 런던시는 관광 홍보로 12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함.
 - ‘런던방문청’(Visit London)의 마케팅 투자가 670만 파운드(약 132억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함.
- 런던방문청은 런던을 특별나게 만드는 ‘오직 런던 100’이라는 관광지 목록을 만들어 홍보전략을 실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계에서 가장 큰 전망대 바퀴: 런던아이(London Eye)
 - 유럽에서 가장 긴 샴페인 바에서 샴페인 마시기
 - 휴 그랜트와 줄리아 로버트의 주연 영화 ‘노팅힐’(Notting Hill) 관광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1458)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시의 ‘오직 런던’ 계획은 세계적 금융 위기 속에서 침체된 도시 경기를 관광 활성화로 되살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판단됨.
 - 런던시는 뉴욕시와 세계 금융도시로서의 명성과 브랜드를 가지기 전부터, 뉴욕시가 1977년 시행한 ‘I love NY’ 홍보캠페인보다 이전인 1960년대부터 도시 관광 마케팅을 실시해 온 도시임.
 - 1966년 창설된 ‘Visit London’은 세계 최초의 도시 관광 마케팅 전담기구로서,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의 관광 마케팅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오직 런던’ 계획도 바로 이 기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도 민선 4기 들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동력 산업 중 하나로 관광산업을 지정하여 서울의 관광진흥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08년부터 '서울관광마케팅(주)'를 독립 설치해 각종 관광 마케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관광 마케팅 기획 및 시행보다 서울시가 기획한 관광정책 위탁사업 집행이 주된 사업이라 당초의 역할과 기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서울시의 관광진흥정책 또한 점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진흥정책 수립이 필요함.

/금기용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kykeum@sdi.re.kr)

4. 재무국장과의 대화를 위한 웹사이트 (베를린)

○ 베를린市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주기 위해 재무국장과 대화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direktzu.de/sarrazin)를 개설함.

- 시민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웹사이트에서 재무국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음.
 - 공개된 질문과 대답에 대해 시민은 찬반 평가도 할 수 있음.

- 시민과 시정부 사이에 새롭게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시민과 시정부가 한층 더 가까워지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3/18/123254/index.html)

5. 경기침체 위기 극복 방안 도움이 웹사이트에 가득 (베를린)

○ 베를린市 경제·기술부와 통합·노동·사회부는 상공회의소, 베를린 기업연합, 독일 연방 노동중계소, 독일 노조연합 등과 함께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주는 웹사이트 '베를린: 위기에도 불구하고'(www.berlin-trotzt-der-krise.de)를 개설함.

- 위기에 처한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국가와 市,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도움이 있음을 알려 줌.

- 이 사이트는 기업과 근로자 두 부분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함.
 - 기업을 위한 정보는 조업 단축금 신청(근로자 해고 대신 조업 단축을 실시하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 기업의 생존 전략을 위한 기업인 교육, 재정 지원 상담,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위해 市가 제공하는 담보 안내, 연방의 경기부양금 안내 등임.
 - 근로자를 위한 정보는 노조를 통한 상담, 단축 근무에 대한 정보, 직업 재교육, 법률 상담 등임.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3/18/123223/index.html)

6. 도시 과제 해결 위해 산학공 협력 사업 실시 (도쿄)

○ 도쿄都 도립산업기술연구센터는 都의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대학 도쿄’와 공동으로 새로운 형태의 산학공 제휴 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 사회적 과제나 도쿄 특유의 도시 문제에서 중점과제를 연간 2건 선정하고, 3년에 걸쳐 거둔 연구성과를 사회공헌으로 환원하는 방식임.
- 공동 연구에서 중점으로 다룰 주제 3개는 ‘환경·에너지 절약 기술’, ‘고령자 지원 기술’, ‘안심·안전사회 실현 IT 기술’ 등임.
 - 2009년에 선정된 중점 과제 해결형 공동연구 주제는 ‘생활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소형 에너지 절약 기기 개발’임. 소형 전자기기나 가전제품에 고효율 차세대 인버터 기술을 적용해 전력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 산학공 제휴 사업은 도시 중점과제 해결과 함께 산업 인재를 육성하며, 중소기업에서의 제품화와 실용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학공 제휴 사업으로 기대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3/20j3vd01.htm)

7. 아동 학대로 판단되면 병원은 이렇게 대응하세요 (도쿄)

○ 도쿄都是 병원에서 아동을 진료하다가 아동 학대로 판단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한 매뉴얼을 작성함.

- 상황에 따라서는 아동 학대로 판단해 신고하다가 보호자와 충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체계적인 대응책 매뉴얼 마련이 필요함.
- 도쿄都가 2008년 9월에 실시한 ‘도내 병원 아동 학대 대응의 실태 조사’에서 127개 병원의 38.6%가 아동 학대에 대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총 응답 병원의 20%는 아동 학대의 대응책으로 매뉴얼 작성(18.9%), 대조표 작성(11.0%), 스터디 그룹 실시(15.0%), 아동학대대책위원회 설치(18.1%)를 언급함.
 - 행정상 필요한 최우선 대응책으로는 아동상담소와 제휴(58.3%), 법적 소송 지원(42.5%)이었음.
- 본 매뉴얼은 아동 학대 대응의 핵심을 잘 정리하고, 각 병원의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양식을 홈페이지에 게재함.
 -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책임자와 구성원의 역할을 정하고, 다른 병원의 사례를 참고해 실제 상황에 대처하며, 사례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해야 함.
- 체계적인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 아동학대대책위원회(CAPS)에서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아동상담소와 육아가정지원센터, 보건소 등과 협동하는 것이 중요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3/20j3vd01.htm)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都의 아동 학대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발은, 의료 기관에서 아동 학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시함으로써 아동폭력이 의심되는 경우의

증상을 의료인이 인지하고 어떤 경로로 신고해야 하는지 숙지하는 효과뿐 아니라 아동 학대에 대한 병원 측의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함.

- 아동 학대에 대한 지역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법적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수 있음.
- 서울시도 병원에서 아동 학대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작성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의료 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 직무상 아동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이를 어겼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실제로 신고율이 높지 않음.
-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보건복지가족부 통계를 보면 아동 학대에 대한 의료인의 신고율은 2%에 불과함.
- 매뉴얼 개발에 앞서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병원 내 자문시스템,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변안전 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의료진이 아동학대 문제를 신고하도록 하는 체계가 우선 만들어져야 함.

/노은이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eyn@sdi.re.kr)

8.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전문센터 건립 (런던)

○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은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시설에 투자할 계획임.

- 런던개발청은 최근 235만 파운드(약 46억 원)를 투자해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전문센터를 만들.
 - 특히 장애인을 위한 첨단보조기술을 연구하며, 신체활동이 어려운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위지버그(Wizzybug)라는 새로운 휠체어를 연구할 계획임.
- 런던시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돕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화하는 데 첨단보조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074)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시의 보조공학센터(AT care Design & Development Center)는 첨단 재활보조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의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하는 선진국형 복지사업임.
- 우리나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 확대 등 최근 장애인 복지 분야의 변화와 더불어 첨단보조기술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임.
 - 현재 서울시는 보조공학서비스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보조기구 보급과 대여사업에 그침.
 - 국내의 재활공학 분야에 대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어서 보조공학기술 개발과 보조공학센터 설립을 서울시 차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김선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unjakm@sdi.re.kr)

9. 이민자 가정 학생의 어학실력 향상 캠프 (베를린)

- 베를린시 교육부는 이민자 가정 학생의 독일어 실력 향상을 위해 Mercator 교육재단과 훔볼트 대학, 사립 어학기관과 협력해 부활절 방학기간에 언어캠프를 운영함.
 -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민 가정의 학생이 중간 단계 졸업시험을 잘 준비하도록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중간 단계 졸업시험 준비뿐 아니라 직업 선택과 관련된 쓰기 훈련, 음악·비디오·패션 등 창의적 워크숍임.
 - 캠프 기간은 시행 기관에 따라 4일, 8일 10일이 있고, 참가비용은 8일짜리 캠프의 경우 식비를 포함해 40유로(약 7만 원)임.
 - 베를린시는 이민자 가정 학생을 위해 2005년부터 이민자 주거지역에 있는 13개 학교에 방과 후 어학 훈련, 문화로 언어 배우기, 방학 중 언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왔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3/20/123410/index.html)

10. 연말까지 식품안전구역 100개 이상 확대 (상하이)

○ 2009년 3월 18일 상하이市는 ‘식품안전구역 설치 및 감독이행에 관한 회의’를 개최함. 2009년 말까지 상업지역, 인구밀집지역, 관광지, 공항, 지하철 역사 주변 등을 중심으로 100개 이상의 식품안전지역을 설치·감독하기로 함.

- 식품안전구역 설정은 3단계로 실행함.

- 1단계는 2009년3월 말까지 5~6개 이상의 시범지역을 정한 후 감독 관련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감독반을 편성함.
- 2단계로 2009년 4~10월 시범지역에 관한 감독 및 시민 만족도 평가를 진행함.
- 3단계는 12월 말까지 식품안전구역을 100개 지역 이상으로 늘림.

(www3.xinhuanet.com/chinanews/2009-03/18/content_15983756.htm)

11. 비행 청소년 직업훈련 우선 지원 (런던)

○ 젊은 세대를 중점 지원하는 직업훈련 정책이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됨. 런던市는 자퇴자, 청소년 범죄자 등 직업 훈련이 절실한 젊은 세대부터 지원할 계획임.

- 총 예산 2300만 파운드(약 454억 원)를 수립하고, 소년원 내부 직업 훈련과 직업 연수, 출소자를 위한 외부 직업 연수 등을 시행함.

- 런던市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비행 청소년이나 자퇴자를 청년·청소년 직업 훈련 중점 지원대상으로 삼는 정책인 ‘Time for Action’을 수립함.

- 예산 일부를 유럽사회지원기금(European Social Fund)에서 지원받음.
- 총괄 진행은 런던개발청이 맡고, 청소년 직업훈련·연수 업무를 대행할 민간단체와 사업체를 심사·관리함.

- 2009년 4월 런던개발청은 참여 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훈련·연수 사업 시행 지원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방재 · 안전

12. 거리 안전 책임질 '자발적 특별경찰' (런던)

- 런던시는 거리 안전을 위해 2012년까지 자발적 특별경찰 1만 명을 뽑기로 함.
 - 2008년에 700명 이상의 특별경찰을 고용했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 대회의 안전을 위해 3200만 파운드(약 632억 원)를 들여 특별경찰 수를 더 늘릴 예정이다.
 - 특별경찰은 치안 교육 수장을 위해 직장에서 공식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특별경찰에게 급료는 지급되지 않으나 일반 경찰 유니폼이 지급되고, 동일한 권한과 업무를 부여받게 됨.
 - 특별경찰은 2주마다 8시간씩 자발적으로 일하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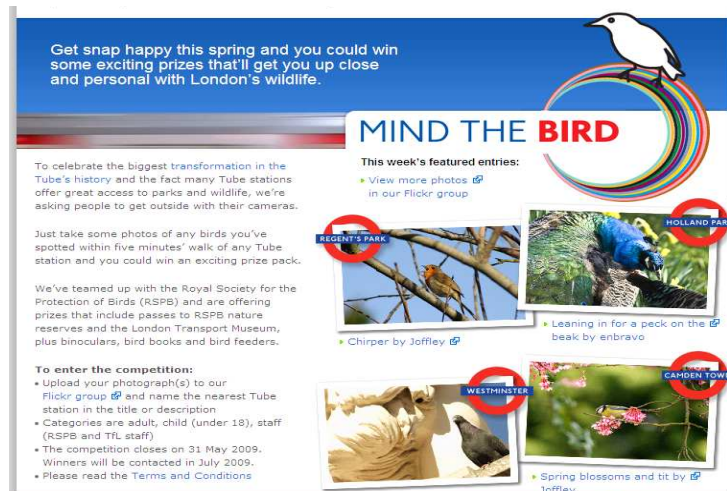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1537)

도시 환경

13. 지하철역 근처에서 촬영한 조류 사진 경연대회 (런던)

- 런던 지하철공사는 왕립조류협회와 공동으로 조류 사진 경연대회를 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지하철공사는, 시설 개선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공원 등 녹지 시설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 대회를 기획함.
 - 런던 시내 아무 지하철역 도보 5분 거리 이내에서 찍은 조류 사진을 촬영장소인 지하철역 이름을 표시해 인터넷 앨범 사이트인 플리커(www.flickr.com)에 올리면 됨.
 - 성인, 18세 미만 청소년, 조류협회 및 런던교통공사 직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심사하며 2009년 5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 7월에 최종 발표함.

- 이번 대회 명칭은, 지하철 안내방송 멘트인 ‘Mind the Gap’(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을 패러디한 ‘Mind the Bird’(새를 살피세요)임.
- 지하철 문화와 자연환경을 즐기는 일상생활을 적절하게 섞어 친근하게 구성된 점이 돋보임.



사진경연대회 홍보 웹사이트: 지하철역 인근에서 촬영한 조류 사진

(www.tfl.gov.uk/tfl/corporate/projectsandschemes/mindthebird)

14. 빌딩 악취 제거 매뉴얼 (도쿄)

○ 도쿄都是 일본에서 처음으로 ‘배수조 악취 대책 매뉴얼’을 작성함.

- 1986년에 ‘배수조 대책 지도 요강’을 만들어 하수 배수조의 악취 발생을 방지해 왔음.
 - 하지만 2007년에 접수된 하수도 민원 893건 중 608건이 악취 민원이었고, 대부분 하수의 배수조가 원인임.
- 악취가 발생하는 빌딩의 관리자에게 개선방안을 지도하여 악취가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 본 매뉴얼에서는 하수가 흐르는 경로를 따라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해 원인이 되는 빌딩을 찾아내며, 빌딩의 배수조를 저수위 펌프 배수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함.
 - 저수위 펌프 배수 방식은 하수 배수조의 배수 펌프 가동을 저수위로 낮춤으로써 하수가 건물 내에서 부패하기 전에 배수하도록 하는 것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3/20j3q100.htm)

15. ‘에너지 절약 진단원’이 에너지 절약 노하우 가정 방문으로 홍보 (도쿄)

- 도쿄都是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홍보하기 위해 업무상 가정 방문을 실시하는 기업과 협력해 ‘에너지 절약 진단원’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함.

- 시범사업 협력 기업은 ‘도쿄 가스(주)’와 ‘생활협동조합(생협)’임.
 - 도쿄 가스(주)에서 공급받는 10만 세대 중 에너지 절약 진단을 희망하는 가정에 방문해 2회에 걸쳐 서비스를 실시함.
 - 회원이 36만여 명인 생협은 희망하는 가정에 방문해 가전제품이나 전기 사용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데이터를 해석하고, 2주 후에 에너지 절약 보고서를 택배로 보내 주는 서비스(에너지 절약 어드바이저 제도)를 실시함.

- 도쿄都是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09년 가을부터 가정 에너지 절약 진단을 실시하는 인재 육성 및 활동 체제를 구축할 계획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3/20j3v100.htm)

16. 도시 녹지화 정책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03년부터 도시 녹지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음. 그 결과 매년 평균 500만 평 이상의 공공녹지가 조성되었고, 2009년에는 1000만 평 이상의

녹지가 새로 조성될 계획임.

- 상하이市는 2003년부터 1급 도시로서의 제한과 재정문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도시 녹지사업에 투자한 결과, 1인당 평균 12.5㎡의 녹지를 갖게 되었고 도시 녹지율 또한 36.17% 수준에 이룸.
- 2009년에는 도시 중심부와 북부를 가로지르는 공원 4개를 연결하는 도시 녹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상하이市는 국제 금융도시뿐 아니라 국제 녹지도시로서도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www3.xinhuanet.com/chinanews/2009-03/14/content_15954239.htm)

도 시 교 통

17. 자전거타기 활성화 위해 자전거 기금 사업 시행 (런던)

- 런던市는 개인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런던 지역사회 자전거 기금’(CCFfL: Community Cycling Fund for London) 사업을 시행함.
- 2009년 4월 3일까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의 원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채택될 경우 최대 5000파운드(약 990만 원)까지 지원받아 자전거 타기 활성화 운동을 벌일 수 있음.
- 기금 운용은 파트너십 조직인 ‘런던 사이클 캠페인’(LCC: London Cycle Campaign)이 주관하며,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와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함.
 - LCC는 특히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과 같이 자전거 이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계층을 참여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음.
 - 모든 시민이 자전거를 즐기며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계속할 계획임.
 - 지역단체나 개인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경우에도 LCC가 사

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

- 런던 시내 자전거 이용자 수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런던 주요 도로에서의 자전거 이용자 수는 90% 이상 증가함.
 - 런던교통공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여 2025년까지 2000년 대비 자전거 이용 수를 400%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움.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1386.aspx)

(www.lcc.org.uk)

18. 1일 교통권으로 통근·통학 해결하세요 (필라델피아)

-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 교통국과 남부 펜실베이니아 교통국(SEPTA: Southern Pennsylvania Transportation Authority)은 'Independence Pass'라고 이름 붙인 1일 교통권을 2009년 4월 중으로 도입해 판매할 예정임.

- 기존 교통패스와 달리 하루종일 무제한으로 도심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도심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시민의 통근·통학, 도심지 출입에도 큰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예상 판매 가격은 성인 기준으로 개인권은 10달러(약 1만 3000원)며 가족권은 25달러(약 3만 3000원)임.

(www.septa.org)

19. 지하철역에서 자전거 무료 임대 (브라질 상파울루시)

- 상파울루시는 자연환경국과 교통국의 협력 아래 지하철역에서 자전거 임대 서비스를 실시함.

- 현재 202대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7900여

명이 자전거를 임대해 사용함.

- 처음 이용할 때는 무료이나 두 번째부터는 시간당 2헤알(약 1000원)의 임대료를 받음.

- 2004년에서 2008년 사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1명에서 69명으로 증가함.

- 상파울루 시정부는 자전거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안전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www.estadao.com.br/geral/not_ger339631,0.htm)

20. 자전거 교통 개선 기여자에게 시상 (베를린)

○ 베를린시는 2009년 3월 18일 자전거 교통 개선에 기여한 시민 단체를 시상함.

- 독일의 다른 도시에 비해 자전거 인구가 비교적 적은 편인 베를린시는 2004년부터 자전거 교통을 개선하고 자전거 이용 시민층을 확대하기 위해 ‘자전거 도시 베를린’이라는 자전거 교통 전략을 추진해 왔음.

- 주요 수상자는 다음과 같음.

- 시민 수상자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특수 백미러 달기 운동을 수년간 해온 공로를 인정받음.
- 한 영화감독은 유명인이지만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대중화한 공로를 인정받음.
- 베를린 지하철공사는 지하철역에 자전거를 세울 장소를 만들고 자전거를 갖고 전철을 타는 데 용이한 시설을 마련한 공로로 수상함.
- 베를린 도시정화공사는 회사 자체에서 벌인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 공로를 인정받음.
- Friedrichshain-Kreuzberg 지역구의 시민학교와 경찰 교통안전상담소는 이민자 가정의 여성, 특히 아랍계 여성에게 자전거 배우기 코스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음.

- 베를린市 교통부는 정기적으로 베를린의 자전거 도로 안내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지난번에는 도시의 역사적 장소를 돌아볼 수 있는 관광용 자전거 도로 안내서를 발행함.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903/nachricht3373.html)

도시계획·주택

21. 빈 건물을 가족형 주택으로 전환 (런던)

○ 런던市는 2200만 파운드(약 440억 원)를 투자해,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1300호의 가족형 주택으로 만들 계획임.

- 빈 건물을 주택으로 재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치구는 지금까지 3900만 파운드(약 780억 원)를 지원받았으며, 2011년까지 2100만 파운드(약 420억 원)를 더 지원받을 예정임.
- 이 프로그램은 부족한 서민주택 공급은 물론 상당한 재보수 작업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1577)

한 줄 뉴스

- 런던
 - 경제 활성화 위해 외국 유학생 적극 유치
 - 런던개발청, 영국의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지역인 템스 게이트웨이 지역 공원 계획 발표

22. 에너지 절약 모델 주택으로 에너지 절약 의식 확대 (베를린)

- 베를린市는 市에서 가장 큰 주택건설 및 주택임대 회사와 독일 연방 건설부가 공동으로 건설한 ‘에너지 절약 모델 주택’을 최근 준공함.
 - 에너지 절약을 의식한 시설과 장비로 시공된 주택은 시민에게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에너지 절약 장치들을 전시하고, 한편에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구형 기계를 전시함.
 - 상담코너에서는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후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함.
 - ‘주택에서의 에너지 효율: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주제로 어떻게 주택에서의 에너지 절약 방안을 논의함.
 - 베를린市는 주택의 에너지 절약을 베를린 기후보호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음.
 - 주택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중 난방용이 28%로 가장 큼.
 - 지난 20년간 베를린市는 난방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해 왔고 특히 市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통해 상당한 에너지 절약 성과를 이루어 현재 독일연방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903/nachricht3374.html)

한 줄 뉴스

- 로스앤젤레스
 - 시청을 중심으로 공공건물이 모여 있는 곳 주변에 새로운 시민공원 조성 계획 발표
- 브라질 쿠리치바市
 - 공공건물, 전봇대 등에 낙서를 금지하는 캠페인 실시
- 상하이
 -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성장시켜 2020년까지 국제금융업과 해운업의 허브로 발돋움할 계획